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Processes in Public Libraries

강은영(Eun-Yeong Kang)*

장덕현(Durk-Hyun Ch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4. 자료선정방법과 자료선정도구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5. 자료선정업무에 대한 인식 |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III.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선정을 위한 논의 |
| 3. 선행연구 | 1. 자료선정정책 |
| II.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의 현황 | 2. 자료선정인력 |
| 1. 자료구입비 규모 | 3. 자료선정방법 |
| 2. 자료선정정책과 자료선정기준 | IV. 결론 |
| 3. 자료선정 담당 인력과 자료선정위원회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업무의 현황을 자료구입비 규모, 자료선정정책과 자료선정기준, 자료선정 담당 인력과 자료선정위원회, 자료선정방법과 자료선정도구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 본 다음 사서들의 자료선정업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료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자료선정정책, 자료선정인력, 자료선정방법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자료선정업무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국내 국립공공도서관 315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키워드: 자료선정, 장서관리, 장서개발, 수서, 공공도서관

ABSTRACT

This paper strives to illustrate the selection processes in public libraries. It specifically attempts to survey the budget allocatio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age of selection criteria, and priority of selection decision in collection development units in public libraries. Staff structure, committee activities, methods of selection, usage of selection tools and librarians' recognitions about selection process are also investigated. Data are drawn from a survey with 315 public libraries in the country. Specific statistics to be analyzed via literature, although not detailed in nature, are scrutinized as well. As a conclusion, the paper discusses such an issue as current situation in selection of materials public libraries and possible impetus toward a better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Keywords: Selection, Collection management, Collection development, Acquisition, Public library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myflora71@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2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5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서관이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과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도구는 '장서'이다. 도서관이 존재가치를 유지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잣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주된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하여 추진 중인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201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은 인구 5만 명당 1개관 수준인 총 900개관으로, 그리고 장서는 8,000만권으로 확충되어 국민 1인당 장서수가 1.6권에 이를 예정이다. 반면, 2010년 말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는 67,487,592권, 1인당 1.34권으로, 수립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략 1,250만권의 장서가 더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서확충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단계로 장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장서구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어떤 자료를 '선정(selection)'하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렇듯 도서관서비스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장서이고, 장서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자료의 선정이기 때문에 선정업무는 관종을 불문하고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도서관을 좋은 책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선정'의 영역에 가장 큰 의미가 부여되어 오고 있다.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은 인력과 예산측면에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료선정의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출판물의 양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서직원 규모를 고려하면 선정담당 사서가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선정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연구과정에서 만난 한 공공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내에서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일에 쫓겨 수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양서를 구입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지 않는 책을 구입하는 게 나의 현실인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인력부족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의 도서관이 선정과정에서 선정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나 선정도구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충분한 정보수집을 통해 자료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찾는 도서가 우리 도서관에 없을 때 수서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도서관에서 꼭 구비해야 할 목록들을 핵심장서 리스트로 만들어 제공한다면 수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사서의 말은 기존의 선정도구가 가지는 한계와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선정담당자의 편견과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으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몇몇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서들로만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문제는 중요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자료선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선정업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보다 효율적인 자료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자료선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5개의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공공도서관이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자료구입에 투입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연간 단행본 구입비 규모를 8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둘째, <장서개발정책서>나 <장서구성계획서(자료확충계획서)> 보유 현황과 자료선정기준 명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정책서나 계획서에 제시된 자료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와 함께 자료를 선정할 때 우선시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셋째,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에 투입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와 함께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위원회의 운영 여부와 운영 형태, 구성원, 그리고 활동주기와 활동정도도 함께 살펴 보았다. 넷째, 도서관에서 자료선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선정도구를 활용한 방법, 실물수서, 현장수서 등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자료선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더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실무 사서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선정 방안을 장서개발정책, 자료선정 인력, 자료선정방법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집계된 공립공공도서관 중 분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본관 524개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서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수집되는 장서의 성격이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524개 공립공공도서관 본관 중 조사에 동의하여 수서담당 사서의 이메일(e-mail)이 확보된 도서관 440개관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34일간 웹(<http://www.ksdc.re.kr/databank/>)을 통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중 설문조사에 응한 도서관은 315개관으로, 회수율은 440개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71.6%이다.

응답도서관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 보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137개관(44%),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143개관(45%), 위탁운영 도서관이 35개관(11%)으로 나타났다. 응답도서관의 지역적 분포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응답도서관의 지역별 분포

지역	도서관수(비중, %)	지역	도서관수(비중, %)
서울	45(14.3)	강원도	28(8.9)
부산	17(5.4)	충청북도	18(5.7)
대구	10(3.2)	충청남도	19(6.0)
인천	12(3.8)	경상북도	27(8.6)
광주	7(2.2)	경상남도	31(9.8)
대전	9(2.9)	전라북도	13(4.1)
울산	9(2.9)	전라남도	22(7.0)
경기도	40(12.7)	제주도	8(2.5)
합계		315(100.0)	

3. 선행연구

자료선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향을 살펴 보면, 자료선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적 연구와 도서관 자료선정 현황에 대해 고찰한 연구 등 크게 2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도서관 자료선정의 현황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도구의 활용 현황과 선정기준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연구가 다소 있는 편이며, 선정정책이나 수서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료선정위원회에 대한 연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의 문제를 예산, 인력, 조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1980년대 초반에 6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1990년대 중반 부산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등 2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서정책에 관한 연구'¹⁾에서는 전국 6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서방침과 자료선정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선정을 위한 인력배치와 조직구조, 장서구성을 위한 이용자 요구 파악과 반영, 자료구입예산, 자료선정원칙 등을 조사하였다. 지금보다 공공도서관의 수가 월등히 적었던 시기이지만, 당시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자료선정 업무의 현황이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약 30년이 흐르는 동안 공공도서관 내외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1995년에 이루어진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과 구입에 관한 연구'²⁾가 있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의 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활동의 결과물인 장서를 분석하고 수서업무의 구조를 파악하여 자료수집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연구자가 관찰자로 참여하여 수서와 관련된 제반 현상을 질적인 방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개별 도서관을 사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과 관련한 단편적인 문제들을 다룬 연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자료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II.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의 현황

1. 자료구입비 규모

응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규모는 장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예산액 중 단행본 구입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보았다. 도서관 장서의 규모는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장서의 규모로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연간 구입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은 26.7%, 5,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이 2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분포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김희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서정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2) 이연옥,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과 구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표 2〉 응답도서관의 자료(단행본)구입비 규모

자료구입비 규모	도서관수 (비중,%)	자료구입비 규모	도서관수 (비중,%)
1,000만원 미만	7(2.2)	15,000만원 이상~20,000만원 미만	29(9.2)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84(26.7)	20,000만원 이상~25,000만원 미만	14(4.4)
5,000만원 이상~10,000만원 미만	90(28.6)	25,000만원 이상~30,000만원 미만	12(3.8)
10,000만원 이상~15,000만원 미만	44(14.0)	30,000만원 이상	35(11.1)
합계		315(100.0)	

2. 자료선정정책과 자료선정기준

가. 장서개발정책서 보유 현황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어떤 형태의 성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6개 도서관(14.6%)이 〈장서개발정책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129개 도서관(41.0%)이 〈장서구성계획서〉나 〈자료확충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50개 도서관(15.9%)은 〈장서개발정책서〉를 토대로 하여 연간 〈장서구성계획서〉나 〈자료확충계획서〉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도서관의 71.4%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어떤 형태로든 성문화된 지침이나 정책서를 가지고 있는 반면, 28.6%에 해당하는 90개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서개발정책서 보유 현황

〈장서개발정책서〉 보유 현황	도서관수(비중, %)	
〈장서개발정책서〉를 가지고 있다	46(14.6)	225(71.4)
〈장서구성계획서〉나 〈자료확충계획서〉 등을 가지고 있다	129(41.0)	
〈장서개발정책서〉를 토대로 하여 연간 〈장서구성계획서〉나 〈자료확충계획서〉 등을 수립하고 있다	50(15.9)	
없다	90(28.6)	
합계	315(100.0)	

이를 운영주체 별로 살펴 보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 137개관 중 120개관(87.5%),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143개관 중 82개관(57.4%), 위탁운영 도서관 35개관 중 23개관(65.8%)이 관련 정책서나 계획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관련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 별로 보았을 때, 대구, 부산, 경기도의 경우 각 10개관(96.7%), 16개관(94.1%), 35개관(87.5%)이 관련 정책서나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도서관이 관련 정책서를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라북도, 울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광주의 경우 각 5개관(38.5%), 4개관(44.4%), 17개관(54.9%), 15개관(55.5%), 4개관(57.2%) 등으로 절반 가량의 도서

관만이 관련 정책서나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취약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자료구입비의 규모별로 보았을 때, 자료구입비가 1,000만원 미만인 도서관은 응답도서관 모두(7개관, 100.0%) 관련 정책서나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인 도서관은 46.4%에 해당하는 39개관이 관련 정책서나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연간 자료구입비가 5,000만원 이상인 규모의 도서관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관련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해 소규모 도서관의 관련 규정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나. 자료선정기준 명시 현황

〈장서개발정책서〉나 〈장서구성계획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해당 정책서나 계획서에 자료선정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93.3%에 해당하는 210개의 도서관이 자료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당도서관이 관련정책서나 계획서에 어떠한 내용의 자료선정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자료유형별 선정기준, 이용자 희망도서, 학문영역별 선정기준, 자관 특성화 영역 관련 선정기준 등은 응답도서관의 각 86.2%, 82.9%, 68.6%, 65.2%가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유형별 선정기준을 명시한 도서관은 응답도서관의 37.1%에 그치고 있었다.

〈표 4〉 자료선정기준에 포함되는 내용

장서개발정책서/장서구성계획서에 자료선정기준 포함여부	자료선정기준	도서관수(자료선정기준 보유 도서관 중 비중, %)	도서관수(비중, %)
포함	자료유형별 선정기준	181(86.2)	210(93.3)
	학문영역별 선정기준	144(68.6)	
	이용자유형별 선정기준	78(37.1)	
	자관 특성화 영역관련 선정기준	137(65.2)	
	이용자 희망도서	174(82.9)	
	기타	5(2.4)	
미포함	-	-	13(5.8)
무응답	-	-	2(0.9)
합계	-	-	225(100.0)

다. 자료선정기준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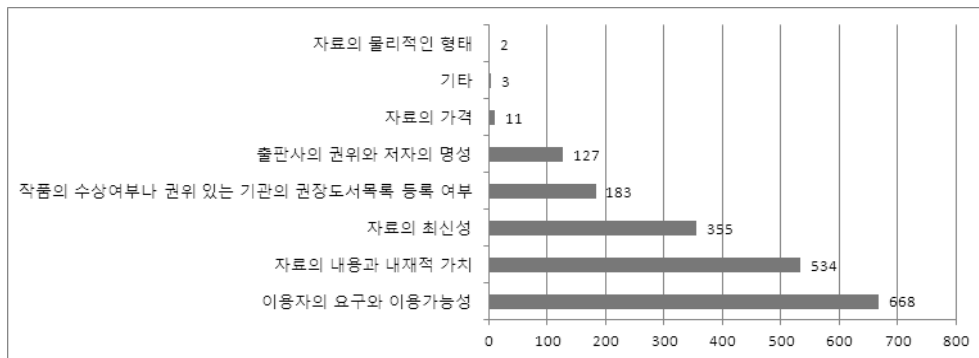
〈장서개발정책서〉나 〈장서구성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자료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 210개관 중 60%에 해당하는 126개관이 선정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참고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선정 작업 때마다 일일이 참고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77개관으로 36.7%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8개관(3.8%)은 자료선정기준을 거의 참고하지 않고 있었다.

〈표 5〉 자료선정기준 활용 정도

자료선정기준 활용 정도	도서관수	비중(%)
모든 선정 작업 때마다 일일이 참고한다	77	36.7
선정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참고한다	126	60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7	3.3
합계	210	100.0

라. 자료선정 시 우선 기준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 기준으로 삼는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³⁾ 조사결과, 〈그림 1〉과 같이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가능성’을 자료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료의 내용과 내재적 가치’와 ‘자료의 최신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작품의 수상 여부나 권위있는 기관의 권장도서목록 등록 여부’나 ‘출판사의 권위와 저자의 명성’ 등의 요소는 상대적으로 크게 우선시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의 물리적인 형태’나 ‘가격’은 자료선정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 요소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자료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이용자의 요구와 자료의 가치가 실제 선정과정에서도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자료선정 시 우선 기준(가중치 부여)

3. 자료선정 담당 인력과 자료선정위원회

가. 자료선정을 위한 담당 인력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규모를 살펴 본 결과,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는 21.3%를 차지하였다. 응답도서관의 85% 가량에 차지하는 도서관에서 1~2명의 사서가 자료선정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3)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있다. 특히 자료구입비 규모가 작은 도서관에서는 사서 1명이 수서 업무 뿐 아니라 자료정리 업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대출 업무 등 도서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 4명~6명 이상으로 응답한 도서관이 22개관으로 전체 도서관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 분장상의 자료선정 담당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내 각 자료실 담당사서에게 구입 자료 목록을 요청하여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분담수서의 형태가 포함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료선정업무 수행 직원 수

자료선정 담당 인원	도서관수(비중, %)	자료선정 담당 인원	도서관수(비중, %)
1명	199(63.2)	5명	8(2.5)
2명	67(21.3)	6명 이상	6(1.9)
3명	26(8.3)	무응답	1(0.3)
4명	8(2.5)	합계	315(100.0)

나. 자료선정을 위한 위원회

(1) 위원회의 운영 현황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선정 담당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장서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에 응한 도서관의 68.9%에 해당하는 217개관이 자료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선정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거나 자료심의를 위한 자료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155개관으로 응답도서관의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료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료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도서관은 62개관(19.7%)이었다.

〈표 7〉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선정을 위한 위원회	도서관수(비중, %)	
자료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155(49.2)	217(68.9)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2(19.7)	
자료선정을 위한 특별한 자문조직이 없다	96(30.5)	
무응답	2(0.6)	
합계	315(100.0)	

운영주체 별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위탁운영 도서관의 경우 각 91.9%와 71.4%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자료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어떤 형태로든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47.2%의 도서관만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료선정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서관의 비중(21.8%)은 더 낮게 나타나, 운영주체 별로 자료선정을 위한 자문조직의 운영 현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주체 별

위원회 유형 운영주체	자료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수, 비중(%))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선정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서관수, 비중(%))	자료선정을 위한 특별한 자문조직이 없다 (도서관수, 비중(%))	합계
교육청	103(75.7)	22(16.2)	11(8.1)	136(100.0)
지방자치단체	31(21.8)	36(25.4)	75(52.8)	142(100.0)
위탁운영	21(60.0)	4(11.4)	10(28.6)	35(100.0)

(2) 위원회의 구성 현황

위원회의 구성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장이나 사서 등 관내위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서관이용자나 외부 전문가 등 관외위원을 두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료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절반 이상이 내부 인력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반면, 도서관이용자나 외부전문가를 구성원으로 두는 경우는 각 34.1%와 24.0%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9〉 위원회 구성원 현황

위원회 구성원	도서관수(위원회 운영도서관 중 비중, %)
도서관장	146(67.3)
수서업무 총괄자	125(57.6)
수서업무담당 사서	146(67.3)
수서업무담당 이외 사서	123(56.7)
도서관이용자	74(34.1)
외부전문가	52(24.0)
기타	1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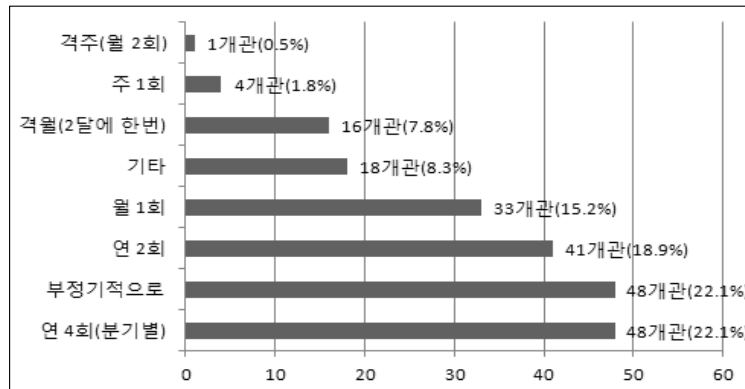
위원회의 구성원 현황이 위원회의 형태 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도서관장, 수서업무 담당 이외의 사서, 외부 전문가의 경우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수서업무 총괄자, 수서업무 담당 사서, 도서관 이용자 항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서관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서업무 총괄자와 수서업무 담당 사서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서관이용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위원회 구성원 현황 - 위원회 유형 별

구성원	도서관	도서관수(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서관 중 비중, %)	도서관수(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서관 중 비중, %)
도서관장		102(65.8)	44(71.0)
수서업무 총괄자		108(69.7)	17(27.4)
수서업무담당사서		125(80.6)	21(33.9)
수서업무담당이외사서		82(52.9)	41(66.1)
도서관이용자		42(27.1)	32(51.6)
외부전문가		37(23.9)	15(24.2)
기타		8(5.2)	4(6.5)

(3) 위원회의 활동 주기와 활동 정도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주기를 살펴 보았다. <그림 2>와 같이 분기별 혹은 부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각 22.1%로 가장 많았으며, 연 2회 18.9%, 월 1회 15.2%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 1회 혹은 격주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으며, 일부 도서관의 경우 자료구입 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위원회 활동 주기

자료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주기를 자료선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되는 경우와 도서관운영 위원회에서 하나의 업무로 포함하여 운영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료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 하는 경우가 41.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월 1회 20.6%, 격월 7.7%, 연 4회 23.2% 등 연 4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54.7%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한 자료선정심의 활동에 비해 자료선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경우 좀 더 빈번한 활동주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위원회의 활동 주기 - 자료선정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

활동주기	유형	자료선정위원회 (도서관수, 비중(%))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수, 비중(%))
주1회		4(2.6)	0(0.0)
격주(월2회)		1(0.6)	0(0.0)
월1회		32(20.6)	1(1.6)
격월(2달에 한번)		12(7.7)	4(6.5)
연4회(분기별)		36(23.2)	12(19.4)
연2회		15(9.7)	26(41.9)
부정기적으로		36(23.2)	12(19.4)
기타		13(8.4)	5(8.1)
무응답		6(3.9)	2(3.2)
합계		155(100.0)	62(100.0)

자료선정위원회나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선정을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질문한 결과, 선정자료 심의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09개관으로 전체 응답도서관의 50.2%에 그치고 있었다. 의례적으로 회의만 하는 경우는 39.6%를 차지하였고, 위원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6.9%를 차지하였다.

〈표 12〉 위원회의 활동 정도

활동정도	도서관수 (비중, %)
선정자료 심의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109(50.2)
의례적으로 회의만 개최한다	86(39.6)
위원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다	15(6.9)
기타	5(2.3)
무응답	2(0.9)
합계	217(100.0)

자료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주기를 위원회 형태 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료선정심의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자료심의를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 비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자치단체 소속에 비해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례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표 13〉 위원회의 활동 정도 - 조직 형태 별

활동정도 \ 유형	자료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수, 비중(%))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서관수, 비중(%))
선정자료 심의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91(58.7)	17(27.4)
의례적으로 회의만 개최한다	49(31.6)	35(56.5)
위원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다	9(5.8)	6(9.7)
기타	3(1.9)	2(3.2)
무응답	3(1.9)	2(3.2)
합계	155(100.0)	62(100.0)

4. 자료선정방법과 자료선정도구

가. 자료선정업무의 방법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자료선정방법을 선정도구를 활용한 선정, 실물수서, 현장수서 등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조사에 응한 335개 도서관 중 선정도구를 활용하여 선정업무를 실시하는 도서관은 278개관(88.3%)으로, 상당수의 도서관이 서지도구에 의존한 선정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현장수서의 방법으로 자료를 선정하는 도서관은 105개관(33.3%), 실물수서의 방법으로 자료를 선정하는 도서관은 21개관(6.7%)으로 나타나 특히 실물수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도서관은 매우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료선정방법(복수응답)

자료선정방법	도서관수	전체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
선정도구 활용	278	88.3
현장수서	105	33.3
실물수서	21	6.7
기타	44	14.0

자료선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운영주체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을 때, 위탁운영 도서관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비해 선정도구를 활용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물수서 시스템을 적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자료선정방법 - 운영주체별(복수응답)

운영주체 \ 선정방법	선정도구 (도서관수, 비중(%))	현장수서 (도서관수, 비중(%))	실물수서 (도서관수, 비중(%))	합계 (도서관수, 비중(%))
교육청	124(90.5)	49(34.3)	5(3.5)	137(100.0)
지방자치단체	127(88.8)	44(30.8)	9(6.3)	143(100.0)
위탁운영	27(77.1)	12(34.3)	7(20.0)	35(100.0)
합계	278(88.3)	105(33.4)	21(6.7)	315(100.0)

자료선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적 편차가 다소 존재하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장수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물수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수가 많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물수서를 실시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자료선정방법 - 지역별(복수응답)

선정방법 지역	선정도구(도서관수, 비중(%))	현장수서(도서관수, 비중(%))	실물수서(도서관수, 비중(%))	합계(도서관수, 비중(%))
서울	40(88.9)	12(26.7)	6(13.3)	45(100.0)
부산	16(94.1)	12(70.6)	1(5.9)	17(100.0)
대구	9(90.0)	7(70.0)	1(10)	10(100.0)
인천	10(83.3)	4(33.3)	1(8.3)	12(100.0)
광주	5(71.4)	1(14.3)	0(0.0)	7(100.0)
대전	9(100.0)	3(33.3)	0(0.0)	9(100.0)
울산	8(88.9)	1(11.1)	0(0.0)	9(100.0)
경기도	32(80.0)	23(57.5)	5(12.5)	40(100.0)
강원도	23(82.1)	13(46.4)	1(3.6)	28(100.0)
충청북도	15(83.3)	3(16.7)	0(0.0)	18(100.0)
충청남도	18(94.7)	2(10.5)	1(5.3)	19(100.0)
경상북도	23(85.2)	9(33.3)	0(0.0)	27(100.0)
경상남도	29(93.5)	5(16.1)	2(6.5)	31(100.0)
전라북도	13(100.0)	2(15.4)	1(7.7)	13(100.0)
전라남도	20(91.0)	8(36.4)	2(9.1)	22(100.0)
제주도	8(100.0)	0(0.0)	0(0.0)	8(100.0)

나. 자료선정도구의 유용성

도서관에서 자료를 선정하거나 주문할 때 자료의 내용이나 서지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료선정도구를 활용한다. 이에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에 주로 활용되는 선정도구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선정도구가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였다.

현재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선정도구는 이용자 희망도서목록, 서점에서 제공하는 베스트/스테디셀러 목록, 관련 단체나 기관이 발행하는 권장도서목록, 신문이나 잡지 등 일간지나 주간지에 수록되는 서평, 출판사가 제공하는 신간도서 목록, 권위있는 문학상/학술상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 데이터나 납본주보를 이용하는 도서관은 매우 드물었다.

〈표 17〉 자료선정에 주로 활용하는 선정도구와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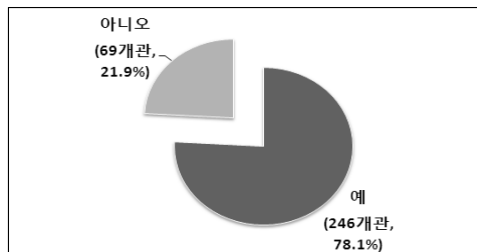
자료선정도구	도서관수(전체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 %)	유용성 평균* (응답 도서관수, 개관)
관련 단체나 기관 발행 권장도서목록	282(89.5)	3.78(313)
신문이나 잡지 등의 서평	246(78.1)	3.69(308)
이용자 희망도서목록	298(94.6)	3.75(312)
권위있는 문학상/학술상 정보	224(71.1)	3.84(307)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나 납본주보	27(8.6)	2.86(238)
서점의 베스트/스테디셀러 목록	284(90.2)	4.00(313)
출판사의 신간도서 목록	232(73.7)	3.39(300)

* 1 매우 미흡, 2 미흡, 3 보통, 4 유용, 5 매우 유용

각 선정도구가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서점에서 제공하는 베스트/스테디셀러 목록에 대한 유용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권위있는 문학상/학술상 정보, 관련 단체나 기관 발행 권장도서목록, 이용자 희망도서목록, 신문이나 잡지 등의 서평, 출판사의 신간도서 목록 등의 순을 보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나 납본주보는 실제 업무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만큼 유용성 정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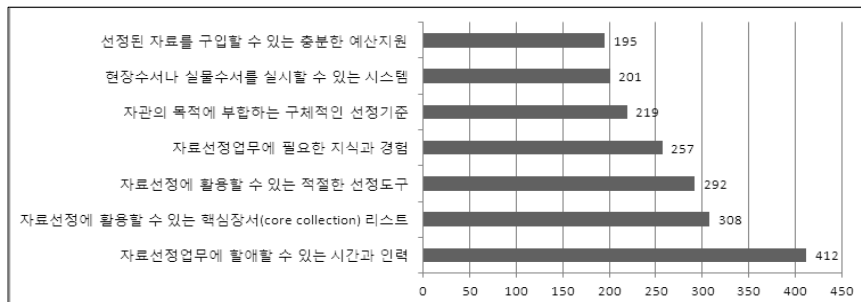
5. 자료선정업무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와 함께 업무 진행과정 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그림 3〉과 같이 315개 도서관 중 246개관(78.1%)에서 선정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 자료선정상의 어려움

자료선정업무의 효율화와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자료선정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 외 자료선정을 위한 핵심장서 리스트, 자료선정에 활용 가능한 적절한 선정도구, 자료선정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자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선정기준, 현장수서나 실물수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요구는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4> 자료선정업무 상의 개선사항(가중치 부여)

자료선정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보았다. 자료선정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 업무의 효율화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로 '자료선정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71개관, 28.9%)', '자료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장서 리스트(57개관, 23.2%)'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반면, 자료선정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업무의 효율화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지원(18개관, 26.1%)'을 꼽았다. 도서관에서 자료선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함과 동시에 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정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확보와 도서관 기본도서 혹은 핵심장서에 해당하는 자료 리스트가 개발되는 것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Ⅲ.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선정을 위한 논의

1. 자료선정정책

도서관에서 자료선정과 장서구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구비되어야 할 것은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서이다. <장서개발정책서>가 자료의 선정 및 폐기 등 장서개발과 관련된 업무

의 원칙 및 지침 또는 이를 명시한 장서구성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장서구성계획서>나 <자료확충계획서>는 일정기간 동안 자료선정과 수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와 관련한 수서계획서이다. 양자의 목적과 포함되는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도서관의 장서구성 방향을 제시하여 자료의 수집활동을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해 가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소이다. 특히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가 다양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장서관리를 위한 선정정책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선정과 관리를 위해 성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을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225개관(71.4%)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장서개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장서개발정책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기계획으로서의 <장서구성계획서>나 <자료확충계획서>를 수립하는 도서관은 15.9%에 그치고 있었다. 도서관 현장에 적합한 단기계획이 수립되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목적과 이상이 녹아있는 장기계획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계획으로서 장서구성의 목적과 원칙을 명시하여 장서구성의 큰 틀을 제시하는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혹은 단기간 동안 자료선정을 포함한 수서활동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선정정책(Selection Policy)이나 수서정책(Acquisition Policy)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경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요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목적과 상황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층,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등으로 이용자그룹을 분화하여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서의 주제영역별 혹은 류별로 선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선정하고자 하는 주제별 장서의 수준을 제시하면서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함께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자 하는 자료를 형태 별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함께 자관에서 특성화된 자료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용자의 특징이 매우 다르며 도서관에 대한 요구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장서구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자료선정기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자료선정인력

가. 자료선정 전담 인력의 확보

도서관의 자료선정 과정은 모든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의 출발

점이 되기도 하며, 구축된 장서의 제공을 통해 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다시 선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서관업무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료선정을 포함한 장서관리과정에 전문사서가 충분히 배치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수서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가 자료선정업무를 포함한 장서관리의 전 영역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요구조사, 자료의 출판동향 파악, 장서개발지침의 작성, 자료의 선정과 구입 등 장서관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영역을 적게는 1명, 많게는 2~3명의 '수서' 담당자가 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도서관에서는 1명의 사서가 수서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어, 자료선정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자료선정과정에 최소한의 인력만이 투입되어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에 맞춰 출간되는 신간을 구입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정'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수서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에게 자료선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응답자의 78% 이상이 업무수행과정 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자료선정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서관 사서 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자료선정자로서의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기에 어려운 상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선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 수행조차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인력보강일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사서 인력의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자료선정을 포함한 수서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체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료선정 등 수서업무를 담당할 전담 부서를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인력구조 안에서 실현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서직원 1~2명으로 이루어지는 선정 작업은 주제의 편향성과 깊이 등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장서구성을 위해 관내 도서관 수서 담당 사서들이 주제별로 분담하여 자료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제별로 분업체제를 갖추어 자료선정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인 선정 자료 리스트를 공유하는 자원공유(resource sharing)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뒷절에서 논의하게 될 핵심장서 리스트의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나. 자료선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선택과정이란 선택대상이 되는 특정 자료의 서지사항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선택 보조도

4) K지역에서 자료선정업무를 주제별로 분업화하여 수서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구로부터 추출한 정보와 선택자가 축적해 온 장서와 이용자와 주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도서관과 장서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이 서로 대비되고 검토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결정은 자료와 이용자라고 하는 객관적 요소에 의해서 보다 이들에 대한 사서의 개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판단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⁵⁾ 이러한 단일 선정자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용자층의 요구를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위원회 형식의 선정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서관은 조사 대상 도서관의 절반에 그치고 있었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료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⁶⁾ 아울러 자료선정을 위한 별도의 자문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위원회의 자료선정과 관련한 활동정도에서도 자료선정위원회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서관의 절반 가량은 의례적으로 활동하거나 기구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자료선정위원회의 부재가 자료선정 과정 상의 어려움을 유발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활동 역시 많은 도서관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자료선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사서이지만, 합리적인 장서구성을 위해서 선정과정에 도움이 되는 인력과 조직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할 경우, 서비스 수혜자인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장서의 현황을 알리고 자료구입비 지원을 확보할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수서업무 담당 이외의 사서를 구성원으로 위촉할 경우 단일 선정자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편견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자료선정이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이들은 도서관 전문가로서 현재 도서관 장서의 강점과 향후 나아갈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장서구성이 가능하다. 초기의 위원회 조직이 주로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를 축으로 한 내부위원 중심의 구조였다면, 최근 많은 도서관이 수서업무 이외 담당사서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소 형식적인 자료선정위원회의 존재를 자료선정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그것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

5) 권은경, “장서관리에 있어서 ‘선택’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9, 12), p.13.

6) E시의 경우 2007년 이전 자료선정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감사 결과 2개의 위원회에 업무가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는 문제로 자료선정위원회 폐지 조치가 내려졌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업무의 하나로 자료선정심의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 자료선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도서관인 U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신청이라는 방법 이외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경로가 없어, 사서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수시로 자료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선정에 반영하고 있었다.

면, 자료선정 과정에서 서비스의 수혜자인 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과정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도서관에서 자료선정위원회를 조직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의 하나로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를 조직할 때 구성 인원을 주제별 담당사서나 자료실별 담당사서 등 내부인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자 등 외부인원 등 양자를 고루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이용자를 위원회에 포함할 경우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사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서비스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서관 실무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제 이용자를 고루 포함한 자료선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선정과정에 실제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례나 관련 규정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 자료선정방법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선정업무는 자료선정도구(selection tool/aids) 등의 서지도구를 활용하여 선정업무를 실시하는 방법, 사서가 서점 등 자료 구입처에서 직접 실물을 보고 선정을 하는 방법, 자료납품업체에서 자료를 도서관으로 보내주면 확인한 뒤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 핵심장서 리스트의 구축

최근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고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서 정보와 관련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선정도구에 의존한 자료선정을 실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도서관의 94.6%가 자료를 선정할 때 이용자 희망도서목록에 의존하고 있었고, 92.2%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서점에서 제공하는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목록을, 89.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관련 단체나 기관이 발행하는 권장도서목록을 근거로 하여 자료선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매년 방대한 규모로 생산되는 출판물의 양과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규모를 고려할 때 사서가 출판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연령별 발달단계나 정보요구, 나아가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책을 선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선정도구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추천도서 리스트나 권장도서 리스트들이다.⁸⁾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서 활용되는 선정도구의 경우 수록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과 방법의 공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선정도구를 만드는 단체가 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리스

8) 장덕현,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과 문제," 도서관문화, 제52권, 제7호(2011. 7), p.22.

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의 목적이나 성격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수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의 상황과 수준에 따른 세분화 작업도 되어 있지도 않다. 특히 인터넷 서점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를 이용하여 자료선정을 실시하는 경우 서지사항이나 품질/절판 등 출판 정보가 부정확하여 계약 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서관에 자료가 들어왔을 때 선정 시 생각했던 자료와는 상이한 자료가 입수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도서관 조직과 인력구조로는 출판되는 모든 자료를 사서가 일일이 검토하여 선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선정도구는 자료선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하지만 기존의 선정도구는 애초에 도서관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자료선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서구성을 위한 핵심장서 리스트(core collection list)가 만들어져야 한다. 핵심장서 리스트는 공공도서관의 규모나 수준 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준/단계별로 구축되어야 하며, 상업출판사가 발행하는 자료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출판하는 자료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장서 리스트가 구축되고 매년 추가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공공도서관 자료선정 업무에서의 활용도와 유용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나. 현장수서와 실물수서 시스템의 구축

자료선정과정에서 자료선정도구에 의존한 방법과 함께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인 현장수서는 서점 등 자료구입처 현장에서 사서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수서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2가지 방법 모두 구입처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나는 사서가 서점에서 실물을 보고 선정 여부를 결정하면 서점 측에서 구입 자료 리스트를 만들어 도서관으로 송부하고, 도서관에서 해당 리스트를 받아서 구입 관련 절차를 밟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서점에서 실물을 보고 사서가 직접 선정된 자료의 리스트를 만들고 난 뒤 구입 관련 절차를 밟는 방법이다. 이러한 현장수서는 자료선정도구를 참고로 하여 선정한 자료의 실물과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간도서의 현황과 출판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도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수서현황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현장수서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조사대상 도서관의 33.5%에 그치고 있었다. 실물을 직접 확인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현장수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서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담당 인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서 책을 두루 살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수서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면서 실물수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몇몇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위탁운영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방법으로, 도서관과 계약한 서점이나 자료납품업체가 매일 혹은 주 단위로 도서관에 책을 제공하면 사서가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선정에서 제외된 자료는 자료납품업체나 서점 측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일일실물수서 시스템(Daily Acquisition System)’ 혹은 ‘원위크시스템(One Week System)’으로 지칭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자료선정도구에만 의존하여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도서관의 성격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과 신간자료가 발행되는 즉시 도서관에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신속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도구가 된다.

경기도 K도서관의 경우 2010년부터 연간총액계약을 통한 자료구입업무를 실시하면서 실물수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도서관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해당 업체에서 신간을 도서관으로 가지고 오면, 사서들이 실물을 확인하고 구입할 책을 선정할 때 업체가 직접 도서관으로 주 2회 방문하여 장비작업까지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선정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장비작업을 한 뒤 다시 도서관으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업체에서 도서관으로 와서 직접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도서관에 자료가 입수된 뒤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장서개발에 있어서 현장수서와 실물수서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환경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료구입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IV. 결 론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좋은 책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질(quality) 좋은 장서의 구축’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 좋은 장서의 구축’을 위한 과정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방안을 자료선정정책, 자료선정인력, 자료선정방법의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해 보았다.

우선 효율적인 자료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으로서 <장서개발정책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기계획으로서 <장서구성계획서>나 <자료확충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료선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자료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자료선정업무 전담사서를 확보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자료선

정업무의 개선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자료선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을 1순위로 꼽은 사서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에서 선정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역내 공공도서관이 주제나 영역 별로 선정업무를 분담하고 선정된 자료의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정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자료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다 현실화하여 운영 정도를 활발하게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장서 리스트의 구축과 함께 현장수서나 실물수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역시 중요하다. 핵심장서 리스트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그간 산발적으로 있어 왔지만 쉽사리 해결되기 힘든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현장수서나 실물수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서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이나 시간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정도구에 의존한 선정방법과 함께 현장수서나 실물수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서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 권은경. "장서관리에 있어서 '선택'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9. 12), pp.1-26.
- 윤희윤. "공공도서관 장서관리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9. 3), pp.5-22.
- 이연옥.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과 구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 이용훈. "도서관장서, 그 힘이 회복되어야 한다." 도서관문화, 제50권, 제10호(2009. 10), pp.20-27.
- 이지연.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09. 9), pp.247-267.
- 장덕현.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과 문제." 도서관문화, 제52권, 제7호(2011. 7), pp.20-25.
- Nisonger, Thomas E. "Are we still selecting?"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Vol.24, No.4(Fall 2000), pp.479-482.
- Rutledge, John and Swindler, Luke. "The Selection Decision: Defining Criteria and Establishing Priorit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48, No.2(March 1987), pp.123-131.
- Schwartz, Charles A. "Book Se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and Bounded Rationali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50, No.3(May 1989), pp.328-343.